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커뮤니티 활성화 박차

고물가 시대 '착한가격업소' 발골

강남구, 76개 사업 21억7000만원 투입 '서울시 최대'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총 76개 사업에 21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다.

12일 구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66개 사업에 21억원, 커뮤니티 활성화 11개 사업에 7000여만 원은 투입한다.

구는 더 많은 단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113개 사업, 32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11개 사업, 약 7000만원 규모로 신청이 들어왔다.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신청에는 소방시설, 아파트 단지 안 주요 통행로, 쓰레기집하장, 어린이 놀이터 등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는 내용이 많았다.

구별 신청 현황은 CCTV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생활 편의와 관리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포함됐다.

구는 환경권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신청 사업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불필요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11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단지에 한 개 사업을 선정하는 원칙을 적용해 시설 보수가 꼭 필요한 66개 사업에 지원을 결정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주택 안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경비원실 보수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였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된 자치법규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비원실 보수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공동체 내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노후하고 오래된 단지의 안전 개선과 열악한 근로 환경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관리비 부담으로 시설 보수에 어려움을 겪던 단지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실제 경비원들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휴게 공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입주주민 사이의 건강한 소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동호회와 낚시, 연영, 주민화합마당 등을 통해 단지가 활력을 보인다.

단순한 친목 활동을 넘어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의 방침이다.

이태우 기자 nice@siminilbo.co.kr

마포구, 신규 지정 신청 접수

마포구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기 위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발골한다.

모집 대상은 마포구 소재 개인 서비스업 전 업종이며, 접수는 오는 12월31일까지 우편·팩스·방문·전자우편 등을 통해 받는다. 업소 대표자와 종사자명이나 나라별 일반 소비자도 신청·추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

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현장 점검과 심사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업종별 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가격을 인정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평균 가격은 구가 매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정업소에는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과 종량제봉투·위생용품 등 필요 물품, 착한가격업소 표창 등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홍보 지원도 이뤄진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영등포구, 26일까지 신청 접수

영등포구는 지난해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6일까지 접수가 77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1인 가구 비중 증가에 맞춰,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다.

지원 품목은 개입된 신호와 주거환경에 따라 A, 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형은 현관문 안전장치의 스마트 초인종(SD카드 포함)으로 구성되며, B형은 현관문 안전장치의 기정용 CCTV(SD카드 미포함)가 제공된다.

이태우 기자 yy@siminilbo.co.kr



어버이날 기념 행사 강서구가 최근 예원교회에서 노인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호응과 감동 속에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은 정현태 부구청장이 표창 수여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송파구도 이종점검정제 제공

송파구가 범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인 가구와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심홈세트'를 무상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정·월세 임대차 보증금이나 자가 주택 가액이 4억원 이하인 가구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저소득층에게 일정한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외부 침입을 지연시키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를 필수로 제공받으며, 실시간 영상 확인용 스마트 초인종과 기정용 CCTV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특히 범죄 피해 이력이 있는 가구에겐 음향인식 비상벨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태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성동구, 16일 '대현산 장미원 장미축제'... 55종 5만5000여송이 활짝

문화 공연·미술 비문소등 즐길거리... 체험 프로그램 제공

성동구는 오는 16일 서울의 대표적 장미 명소로 손꼽히는 대현산 장미원에서 '제5회 대현산 장미원 장미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현산 장미원 장미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대현산 장미원'은 과거 방치돼 있던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장미 테마 공원으로 현재 55종 약 5만5000여송이의 장미가 아름다운 단락을 이루어 주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하며, 장미가 만개한 장미원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식전 공연으로 기타 연주와 장미나타 공연이 진행되며, 오전 11시부터

부터 개회식이 열린다.

이러 행사장 곳곳에서는 장미 향기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클래식 앙상블과 제즈·색소폰 공연, 감성 보컬 정영지와 음원강자 '김안영'의 무대를 비롯해 미술 비문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모든 세대가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미를 주제로 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솜사탕 만들기, 인

생네컷 합영, 다육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플라마켓과 푸드존도 함께 운영돼 축제장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5회째를 맞이한 '대현산 장미원 장미축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이어져 온 마을 축제로 이제는 구의 대표적 주민 참여형 축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박선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중구, 내달 10·15일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AI 활용 사업제안서 작성 실습 과정도 도입

중구(권한대행 배영우)가 주민 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제안사업 발굴을 위해 '2026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구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초조각서 작성 실습 과정으로 도입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 기초과정은 오는 6월10일(오전 3시) 유진누리센터 3층 대우회의실에서 열린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약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초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필요성, 중구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한, AI를 활용해 직접 사업제안

서를 작성해 보고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보는 실습이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오는 6월15일 오후 4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심화과정에서는 5개 분과별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토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후 AI를 활용한 유사사례와 결정요인 등을 검토·보완하며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공유한다.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인 김민정 강사가 맡는다. 김 강사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초과정 참여 신청은 오는 6월5일까지 가능하며, '주민참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이태우 기자 yy@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도봉기적의도서관, 북스타트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봉구 도봉기적의도서관이 '2026 북스타트 주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북코리너(책읽는사회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은 오는 22일까지 1층 자료실에서 '선물'을 주제로 한 특별 릴레이 독서 전기를 진행한다. 전시에서는 그래픽 노블 '책 마왕'이 추천한 도서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방문객들이 마음을 베풀고 전하는 참여형 활동과 가족이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된다.

오는 21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우리끼리 그래픽 놀이' 프로그램도 열린다.

참가자들은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 그래픽 '선물이 북!'을 읽고 주제와 연계한 놀이 활동을 체험한다. 이어 미니 펠트 가방 만들기 후속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인양초 6명(2인 1팀)이며, 신청은 도봉구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자원순환센터 견학 프로그램 제공

강동구, 내달까지 화·목요일 운영

강동구가 지역 주민들이 폐기를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자원순환의 가치를 배우는 '자원순환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오는 6

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낮 12시~오후 1시는 점심시간이다.

참여 대상은 단체 단위로 한정하며 회당 인원은 최소 6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태우 기자 yy@siminilbo.co.kr

참가자들은 지상부의 탄소중립 홍보채널과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통합제어실을 중심으로 견학한다.

지하시설의 경우 안전 관리와 시설 운영 상황을 고려해 일부 구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견학 신

참은 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센터 운영팀을 통한 전화 접수로 진행했다.

구는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오는 7월부터 홈페이지와 네이버 예약 등 온라인 마케팅을 구축해 예약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태우 기자 nice@siminilbo.co.kr

동작구, 내달 8~19일 중장년 악곡사무원 양성 교육

동작구는 지역내 일리리 창출 및 중장년 재취업을 위해 오는 8월8~19일 '악곡사무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구에 거주하는 만 40~55세(1971~1986년 출생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악곡사무원 직무 이해 ▲처방전의 이해와 해석 ▲전산 업무의 이해 등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중로구, 46개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 제공

중로구가 국내외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문화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46개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북촌전통공예체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16개 공방 장인이 직접 참여해 전문성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그 못지않게 재료가 짙고 체험, 도자기 수리 체험 등, 기존에 없던 것에 대해 기법을 짚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신규 과정이 추가됐다.

요일별로 조라보 팔찌와 호패 만들기, 자기 소품 만들기, 점기틀레 체험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여름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더위쉼터 기능도 제공하는 이 공간에서 실과 후속 활동을 제외하고 연중 내내 진행된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북촌전통공예체험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어버이날 기념 표창 수여

양천구가 최근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표창 수여식'을 열고 가족 돌봄과 효행과 이웃사랑 실천에 헌신해 온 주민과 단체에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은 하영태 구청장 권한대행(가운데)이 수상자에게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양천구는 경기침체와 소비재편 변화 속에서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추진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환경이 일상화됐지만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는 홍보 콘텐츠 제작이나 온라인

마케팅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온라인마케터 3명을 채용해 업종과 특성에 맞춘 밀착 지원에 나선다. SNS 콘텐츠 제작부터 브랜드 컨설팅, AI 활용 홍보전략까지 무료 지원하며 온라인 시장 진입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소상공인부터 초기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박선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서초구, 지하공영주차장 12곳서 침수 예방 모의훈련

서초구가 최근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역내 지하공영주차장 12곳을 대상으로 침수 예방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하공간 침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급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침수 발생 시 대피 내역은 ▲이동식 침수방지 장치 시연 및 차량 펌프 ▲자동차 침수방지 원격 작동 시험 ▲현장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도, 지하공영주차장 12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다.

박선진 기자 zini@siminilbo.co.kr